

파리 오아시스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의의

유우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현재 파리의 학교와 대학의 안뜰은 하나의 ‘오아시스’로 변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 파리 평의회에서 채택된 ‘파리 회복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목표는 단순하다. 일상생활에서 더 쾌적하고 모두가 더 잘 공유할 수 있는 상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21세기의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 도시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리는 ‘15분 도시’ 발표 이후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건축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시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채우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및 대학부지의 활용을 중요한 수단으로 정하였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학교와 대학 부지는 70ha 이상의 표면적을 차지하며 지방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와 대학의 안뜰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불투과성이 강하며, 이러한 공간은 도시 열섬효과(heat island effect)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파리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상쾌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락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에도 공원을 제외한 학교와 대학교 같은 공공건축의 안뜰은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는다. 그 수가 적지 않고 도심 안에서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이러한 공간을 개조하여 시민들에게 열어준다면 어떨까? 각 학교의 안뜰을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자연공간, 더 많은 식물, 어린이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더 많은 놀이시설,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

* 프랑스 기상청은 세기말까지 현재 기준 값 12.4°C에서 연평균 기온이 1~4°C 증가하고, 폭염이 내리쬐는 날도 10~2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공할 수 있게 된다. 빗물처리와 수위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쓰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특히 폭염기간에는 노약자처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다.

오아시스 프로그램 방법론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교육시설의 안뜰을 개조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기능에다 다른 용도를 더함으로써 학교가 새로이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부지에 있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간 개선을 도모한다.

학교 운동장 개혁: 공간 설계 및 변형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은 먼저 새로운 놀이터, 즉 학생과 성인이 모두 만족하는 시설의 관련성을 제안한다. 안뜰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공간의 새로운 배치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를 위한 모임을 만든다. 모임의 주체는 관련 학교의 어린이와 학부모로, 이들은 설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면은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도록 안뜰 바닥 재질을 바꾸며, 그늘이 없는 경우 열섬현상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흐르는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공간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을 설치한다.

또한 자연공간 안에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나무가 심어진 작은 숲, 식물로 뒤덮인 지붕과 벽, 교육용 정원, 과수원 그리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원두막 등 아이들이 자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때는 앞으로의 식생을 감안하여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디는 종을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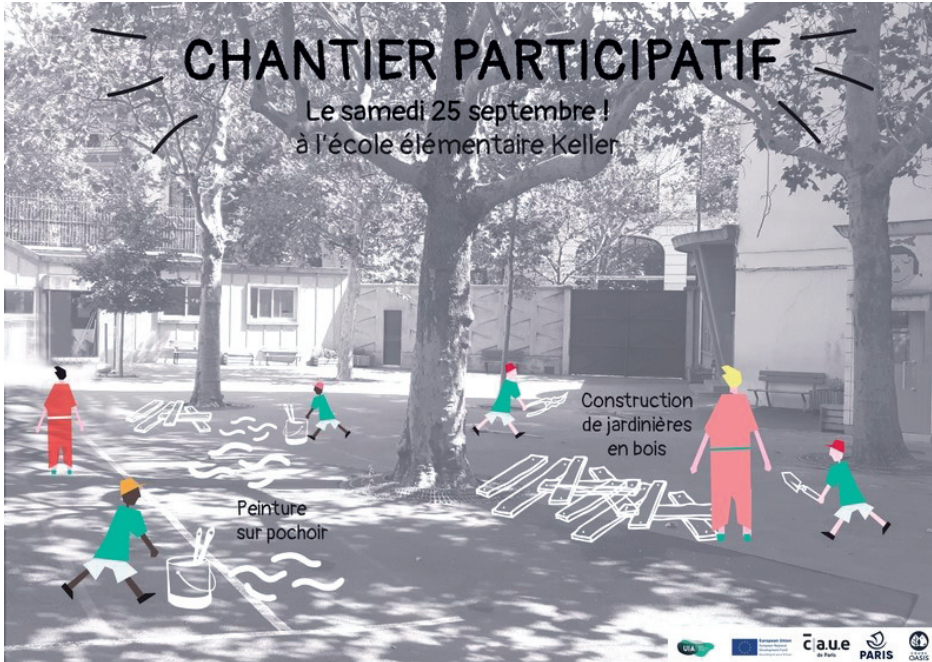
아울러 설치되는 기구와 가구는 공간을 좀더 효과적으로 공유(다양한 세대, 성별 등)하고 다양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 설계 모임을 통해 학교의 어린이와 성인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인공 수직 암벽을 통해 계단, 등반 게임, 오두막, 감각 산책로가 제공되며 수직 암반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선정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고려한다.

이 밖에 물을 안뜰에 더 많이 두기 위해 분수대를 설치하고, 여러 형태의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여 놀이

©ville de Paris



오아시스 프로그램 공간 개념도



오아시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 안내

와 교육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나아가 도시에 상쾌함을 더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나무를 추가한다.

이렇게 변형되는 학교 안뜰은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에 성인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시민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이루어진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간 개조가 이뤄져야 이후 적극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방법론(공동 설계를 통한 시민 참여, 새로운 교육시설 및 여가시설로서의 접근)에서 도입된 참신함은 다양한 관련 행위자의 강화된 능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아이디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물 관리, 교육 정원 가꾸기, 세대와 성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규격 등 프로젝트의 다양한 차원과 관련하여 교육 및 회의가 제공된다.

오아시스 코스의 재구성은 코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학교 교과시간과 과외시간 동안 오아시스 코스는 다음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야외 공간의 교육적 사용(교육 정원, 야외 교실, 새로운 스포츠 활동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용은 특히 자연으로의 이동 및 접촉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어울리며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장비의 선택과 위치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일부 시설은 또한 공간의 공유(접근 가능한 녹지, 등반 게임 등)에 보다 자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시설에서 성인과 어린이가 좋은 조건에서 공간 사용에 대한 집합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일부 시설은 학교 구성원 외 다른 사람들도 이
용할 수 있도록 ‘시간별 사용 시간’을 설정한다.

교육시간 외에는 도시의 상황에 따라 주변 시민들에
게 학교 프로그램이 공개될 수 있다. 올여름처럼 폭염
이 기승을 부릴 때는 가장 취약한 노인과 약자들을 위
한 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
록 한다. 또한 15분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부 오
아시스 코스는 토요일에 열리도록 한다.* 이런 맥락
에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
안될 수 있으며 지역 협회는 특히 오아시스 프로젝트
요청을 통해 파리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러
한 공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을 더 잘 적응하고 보급하기 위한 평가 작성

현재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식은 평가 대
상으로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를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와 피
드백을 수집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
존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나 연
구원과의 연결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오아시스 프
로그램을 다양한 측면(기후, 온도, 소음, 생물의 다양
성 잠재력, 웰빙, 사회적 영향)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바람직한 쪽으
로 개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아시스 프
그램을 프랑스 전역, 나아가 유럽 전역에 보급할 수 있
도록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를 오픈소스로 다운로
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아시스 프로젝트 ‘혁신적인 도시 활동’의 단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주요 단
계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젝트 관련 목표 설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웰빙, 프로그
램을 통한 새로운 개발을 제안하는 워크숍 개최
- 2) 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일부로 워크숍 개최, 도시환경에 대
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
- 3)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교육팀과 시립 기술 서비스에 대해 동일
한 주제에 대한 인식 및 교육세션이 제공되어 프로젝트의 개발
및 적용을 가능케 함
- 4) 안뜰의 변형: 친환경 재료(흙, 나무, 모래), 더 많은 식물, 물의 재
활용, 독창적 놀이 및 여가를 위해 사용될 공간을 필요에 맞게
조정, 투과성 토양으로 대체하고 안뜰의 특성을 활용한 조경하
면서 사색을 위한 공간 제공
- 5) 목공, 재료의 손질, 페인팅 등 안뜰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의 작업시간 이외에 시민 참여 프로젝트 구현: 학부모,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 교육팀이 시공 과정에서 프로젝트와
연결됨
- 6) 개발된 안뜰에서 시민들은 공간을 공유하고, 교육시간 외에 수
업을 열도록 시민들을 독려
- 7) 전체 프로세스와 전반적인 영향(기후, 사회환경)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복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 평가받음

이처럼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안
뜰에 대한 공간인식 변화 및 제고)가 동반된다. 프로젝
트 시작 전후에 어린이들에게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직접 관찰과 문서 분석을 통
해 구축된 지표의 그리드 덕분에 작업 전후 과정의 사
용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의 발전

* 2021년 1월부터 토요일에 여러 학교와 대학 시설을 일반인에게
실험적으로 개방하였다. 파리 시내 28개 어린이집은 학군의 모
든 가족에게 개방되어 적합한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
낼 수 있게 하였다. 토요일 아침에는 지역 협회에서 예술·음악·
놀이 또는 신체 각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주 활동 대상
은 6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으로 하였다. 42개의 학교 및
대학 안뜰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된다. 하지
만 겨울에는 개방시간과 수업의 수가 줄어든다. 또 학교의 방학
기간에는 열지 않는다.

** 이 제안서는 모든 연령대에 제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신청할 때는 제안하는 활동과 내용, 활동 대상, 대상 학군의
가능한 학교 및 대학교 공간, 사용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학교 안뜰 - 켈러초등학교(Cour Oasis de l'école élémentaire Keller)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학교 주변의 사회적 연결에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효과성과 결과가 공개된다.

시사점

최근 파리는 도시 프로그램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15분 도시 정책 발표 이후 공간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파리시가 찾은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안뜰이라는 공간이다. 하나의 기능에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학교 안뜰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이 공간은 학교가 선택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안뜰은 건물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열고 닫히는 안뜰은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도시 속 열린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르주 외젠 오스만(Georges-Eugène Haussmann)이 파리를 개조할 때 지어진 건물의 형태는 한 건물을 공유하는 이들이 하나의 안뜰을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허락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안뜰이다. 그러한 공간에서 살아온 파리 시민들에게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중에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마당이라는 공유공간을 가지고 있다.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마당을 활용하여 이웃과 교류를 해 왔고 때로는 실(室)의 연장으로, 때로는 마을의 연장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빨래를 널면 빨래방, 결혼식을 하면 예식공간, 제사를 지낼 때는 제례의식을 위한 공간이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운동장을 거쳐 학교 건물로 진입한다. 학교 건물의 배치 또한 전통가옥의 배치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ㄱ’자, ‘L’자, ‘ㄷ’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다. 공유공간인 운동장은 교문을 통해 보호받고 있지만 운동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웃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뀐다.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은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 프랑스에서 기울어가는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공간의 개방은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 서양의 뜰이나 정원처럼 하나의 기능에 갇혀 목적을 잃으면 공간마저 없어지지

만, 처음부터 다양하게 활용하였던 마당과 같은 공간은 목적이 없어도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교 운동장은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뜰과 운동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설치로 밀도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파리 학교의 안뜰과 달리, 우리나라 학교의 운동장은 그 규모가 적어도 안뜰의 몇 배는 된다. 따라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나아가 건축·도시·조경과 관련된 전문가 및 연구원들과의 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큰 규모의 운동장이 하나의 숲 또는 잔디밭이 되거나 부족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된다면, 또한 그것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 도시의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학교의 내부 공간만큼 외부의 공간을 먼저 바꾸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설치되는 놀이·여가 시설은 그야말로 사회적 축소판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공생을 도모한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긴밀한 회의를 통해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운동회처럼 1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성 학교행사에서 벗어나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에 맞춰 운동장은 더 이상 흙으로 덮인 허허벌판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직면한 문제와 도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도하는 공간변화는 ‘학교’, ‘문화’, ‘시민 참여’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그 시작인 학교 공간의 안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도시 변화를 시도하려는 이러한 파리의 움직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공간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우리나라의 도시 인프라 활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 마련을 위한 각 지역 전략 등 물리적·공간적·사회적 환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1 파리 건축, 도시 계획 및 환경 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aue75.fr/content/qu-est-ce-qu-une-cour-oasis>
- 2 파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ris.fr/>
- 3 파리교육연맹 홈페이지. <https://ligueparis.org/>
- 4 프랑스 기상청 홈페이지. <https://meteofrance.com/>
- 5 Stratégie de Résilience de Paris/ 파리시청 / 07.2017
- 6 Cahier de recommandation / 파리시청 / 06.2020
- 7 https://www.youtube.com/watch?v=x9Icq1QSQvY&ab_channel=CAUEdePARIS